

탄 원 서

수 신 :

발 신 자 :

탄원 사항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-47호

저는 파킨슨증으로 치료 중인 _____ 환자의 보호자입니다.

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항우울제인 SSRI계통의 약제가 비급여로 처방되는 점에 대해 탄원드립니다.

우울증은 파킨슨 환자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자살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로는 대표적으로 삼환계 항우울제 (TCA)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(SSRI)가 있습니다. 담당선생님은 SSRI는 TCA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어 노령의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SSRI는 신경과에서는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고 정신과에서만 보험급여로 처방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. 파킨슨 환자들은 거동이 느리고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나 환자가 SSRI를 보험급여로 처방받기 위해서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병원에 따로 내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고 정신과 진료비를 또 지불해야 합니다. 이 점에 대해 신경과학회에서 5년 이상 이익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나 현재의 규정대로는 신경과에서는 비급여 처방만 가능하여 지금의 규정대로라면 환자가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.

부디 SSRI를 신경과에서 급여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파킨슨병과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.

감사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인)



우울증은 파킨슨병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이를 치료하는 항우울제는 삼환계 항우울제 (TCA)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(SSRI)가 있습니다. SSRI는 TCA에 비하여 부작용이 적어 노약한 파킨슨병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SSRI는 TCA에 비해 고가라서 **노약자가 많은 신경과에서는 오히려 장기 처방을 할 수 없는 등 처방에 심한 제약이 있습니다.** 따라서 파킨슨 환자들은 이 항우울제를 처방 받기 위하여 **불편한 몸을 끌고 정신과를 다녀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합니다.**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 및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에서는 5년 이상 이의 부담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현재의 규정대로는 비급여로 처방만 가능합니다. 위 불편에 대해 정부에 탄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민원을 제기해주시시오.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탄원해주시기 바랍니다.

민원사항 : 보건복지부 고시 2007-47호(2007.6.1시행)

1. 규제개혁위원회

<http://www.rrc.go.kr/>

전화 : 02)2010-2279, 2280 팩스 : 02)2100-2289

2.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신청

<http://www.acrc.go.kr/acrc/index.do>

3.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<http://www.hira.or.kr>